

## ‘이념’ 에서 ‘이념과 사용법을 연결하는 6 가지 포인트’, 그리고 ‘사용법’ 으로

여기에서는 이 책의 기초 부분에 해당하는 민주적 시민성의 이념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생각도 문화적 배경도 서로 다른 여러분이 대화를 통해 다양한 깨달음을 느끼고 자신의 생각을 깊게 하며 그에 대해 명확한 언어를 구사하여 대화를 발전시켜 나간다. 이 책은 이러한 활동을 언어 교육의 현장에서 실천하기 위한 것으로, 그 생각의 기초가 되는 것이 민주적 시민성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민주적 시민성이란 각각 서로 다른 생각이나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타협하면서 관용성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시민의 자세, 다른 사람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닌 스스로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가하여 우리의 사회를 구축해 가고자 하는 시민의 자세를 가리킵니다.

우선 ‘이 책의 이념’ 섹션에서는 저자들이 일본어 교육을 실천하는 기초가 된 유럽 평의회 (Council of Europe) 의 민주적 시민성 교육과 독일의 민주적 시민성 교육에 대해, 그리고 독일의 민주적 시민성 교육의 기본적 합의 사항인 보이텔스바흐 합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 책을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한 필수적인 이념이며 기본적인 파악 방법이 기 때문입니다. ‘이념’ 섹션을 읽은 다음에 ‘이념과 사용법을 연결하는 6 가지 포인트’ 섹션을 읽고 실제로 활동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념을 사용법에 반영하기 위해 중요한 ‘시점’ 이 그곳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념과 사용법을 연결하는 6 가지 포인트’ 를 학습한 후에 ‘이 책의 사용법’ 의 설명을 읽어 주세요. 이 순서대로 읽으면 교재의 내용이나 교재 속의 활동을 완전히 이해하고 학습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유럽 평의회의 민주적 시민성 교육 / 인권 교육

유럽 평의회<sup>1)</sup> 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49년에 유럽에서 설립된 초국가적 기관으로 현재 46 개국이 가맹국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민주주의, 인권, 법치’ 를 이념으로 삼고 이러한 가치관을 옹호,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 평의회는 오랫동안 민주적 시민성 교육 / 인권 교육에 힘써왔습니다. 민주적 시민성 교육은 민주주의적 권리와 책임 및 여러 사회의 적극적 참여에, 그리고 인권 교육은 인권 및 기본적인 자유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유럽 평의회는 양자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하여 이러한 교육을 실시할 때 두 내용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두 가지 교육을 포함하여 민주적 시민성 교육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겠습니다. 최근 유럽에서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폭력, 인종주의, 과격주의,

외국인 혐오, 차별, 무관용의 대두가 문제가 되고 있으며<sup>2)</sup>, 그에 대항하기 위해 더욱 민주적 시민성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1997년부터 유럽 평의회 가맹국 간에 민주적 시민성 교육을 위한 대치가 활발히 논의되기 시작하여 2010년에는 민주적 시민성 교육에 관한 유럽 평의회 헌장이 발표되었습니다<sup>3)</sup>. 그것이 민주적 시민성 교육에 대한 유럽 공통 기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sup>4)</sup>. 이 헌장은 유럽 평의회의 이념 (민주주의, 인권, 법치) 을

1) <https://www.coe.int/en/web/about-us> (2023년 9월 11일)

2) Ruth Wodak (2020) The Politics of Fear (Second edition). Sage (루트 보닥 저 이시베 나오토 (역) (2023) 『우익 포퓰리즘 담화(제2판)』 아카시 서점.)참고.

3) [https://www.coe.int/en/web/edc/home/-/asset\\_publisher/MmQioA2qaHyO/content/twenty-years-of-promoting-education-for-democracy-and-human-rights](https://www.coe.int/en/web/edc/home/-/asset_publisher/MmQioA2qaHyO/content/twenty-years-of-promoting-education-for-democracy-and-human-rights) (2023년 10월 2일)

4) <https://www.coe.int/en/web/edc/charter-on-education-for-democratic-citizenship-and-human-rights-education> (2023년 10월 2일)

실천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보고 각 가맹국의 아이들과 젊은이들의 교육에 힘쓰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민주적 시민성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과 이 학습은 살아가는 동안 계속되어야 하므로 어떠한 형태로든 교육에 관련된 모든 관계자 및 관계 단체를 육성하는 것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연대와 서로 다른 문화 간의 대화, 다양성의 존중, 평등을 촉진하는 것이 그 목적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지식과 기술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유럽 평의회가 이념을 옹호하고 촉진하기 위해 행동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 독일의 민주적 시민성 교육

이러한 유럽 평의회 교육적 대처와 연계하며 활동하고 있는 것이 독일의 민주적 시민성 교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책의 저자들이 학교 견학, 교사와 학생들의 인터뷰를 통해 알게 된 독일의 민주적 시민성 교육에 대해 보다 자세히 적고자 합니다. 하나의 큰 흐름은 연방 정치 교육 센터로 인한 교육으로 독일어로는 politische Bildung(정치 교육) 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Education for Democratic Citizenship(EDC, 민주적 시민성 교육) 에 해당합니다. 즉, 독일에서의 '정치 교육' 이란 일본에서 사용하는 좁은 의미로서의 '정치' 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시민 개개인이 폭넓은 의미의 민주주의를 배우고 실천하여 민주적 시민성을 획득하기 위한 교육을 가리킵니다. 다른 하나의 흐름은 Demokratiepädagogik(민주주의 교육)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초반에 네오나치나 인종차별적 움직임의 대두에 대처하기 위해 교육학에서 생겨난 것으로 학교 내외에서의 민주적 토대를 만들기 위해 광범위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민주적 시민성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은 학교의 과목으로서의 '정치' 의 수업뿐만이 아닙니다. 조퇴 시간의 학생회 활동도 대화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정치 교육의 현장이라 할 수 있을 만큼 학교 전체가 열정적으로 민주적 시민성 교육에 힘쓰고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민주주의' 나 '(사회나 정치에) 참여' 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민주주의' 라는 말은 학교의 공민학 등에 나오는 용어, 지식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수도 있지만 자신에게 연관된 다양한 활동을 대화를 통해 실천하는 것이 '민주주의' 입니다. 어린 아이들도 어른도 민주적으로 학교나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서로 아이디어를 내고 여러 가지 활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가' 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발언하고 서로 이야기하여 그것을 어떠한 형태로든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예를 들자면 아이들이 자신들의 동네에 있는 공원의 설계 단계부터 의견을 내고 그것이 반영되면 아이들이 동네의 정치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학교에는 '적극적인 쉬는 시간 (aktive Pause)'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적극적' 이란 학생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활동에 관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극적인 쉬는 시간' 에는 장난감, 책, 게임 등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할 것을 스스로 디자인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이디어로 상대를 설득하고 많은 동의를 얻어 실제로 그 형태를 만들어 가는 것이 민주주의로 그로부터 역량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실패한 경험도 앞으로의 생각과 활동에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연방 정치 교육 센터

이러한 교육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 중의 하나가 연방 정치 교육 센터 (1952년 설립, 1963년 개칭) 입니다. 시민이 정치적, 사회적 문제에 비판적으로 대처하고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가할 수 있도록 실로 다양한 계몽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독재라고 하는 역사의 반성으로부터 독일 연방 공화국은 특히 민주주의, 다원주의 (Pluralismus),

관용성 등의 가치를 시민 의식 속에 확고하게 하려는 책임을 다하려 하는 것입니다<sup>5)</sup>. 다원주의란 그 사회에 살며 여러 가지의 의견, 이해관계, 목적, 기대를 가진 사람들 모두를 존중하려는 자세입니다<sup>6)</sup>. 가네코 미스즈의 유명한 시 ‘나와 작은 새와 방울과’ 속에서 ‘모두 달라서 모두 좋아’ 라고 하는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은 다원주의와 통하는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 서로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초를 쌓는 것이며 민주적 사회의 반대편에 있는 다른 이를 배제하려 하는 배타적 사회로 향하는 흐름을 막을 수 있고 과거의 참혹한 전쟁의 재발을 막는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민주주의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기반이 됩니다

## 보이텔스바흐 합의

독일의 정치 교육은 전쟁의 반성 위에서, 헌법에 해당하는 독일 연방 공화국 기본법의 기초가 되는 민주주의와 인권 의식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과거에는 보수와 혁신파의 싸움과 같은 정치적 사정에 의해 정치 교육에 대한 공통된 인식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1976년에 전문가들이 지나간 논쟁의 끝에 정치 교육에 합의하였습니다<sup>7)</sup>. 보이텔스바흐라는 지역에서 합의되었기 때문에 그 합의 사항을 ‘보이텔스바흐 합의’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 합의가 연방 정치 교육 센터는 물론이고 민주주의 교육에 있어서도 기본 방침이 되고 있습니다.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아래의 3가지 항목이 있습니다<sup>8)</sup>.

- **압도 금지**: 교사가 일정한 생각을 학생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교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학문적, 정치적 논쟁이 있는 다양한 입장을 수업에서 다룬다**: 학문이나 정치에는 논쟁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나라와 교사에게는 다소 곱지러운 견해가 있어도 논쟁이 있는 것은 있는 대로 토론한다는 것입니다.
- **학생은 정치적 상황이나 자신의 이해관계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교사는 학생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른 정치적 판단 능력이나 참가 능력을 갖추도록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합의는 정치 교육 / 민주주의 교육을 하는 쪽에게 요구되는 자세라 되어 있습니다. 이 합의가 지켜지면 서로의 인권이 존중되고 대화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세가 추진되면서 자연스럽게 교사의 위치도 변하게 됩니다. 교사도 학습자도 같은 인간으로서 존중되는 상황에서 대화하고 서로 배워가는 상대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정치적, 사회적으로 금기시되어 교사와 학습자가 교실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없는 상황으로부터 해방됩니다. 교육은 중립적이어야 한다고 할 때 ‘중립적’이라는 해석도 여러 가지라 문제입니다. 우리가 기인하고 있는 축은 민주주의 사회를 옹호, 강화하는 민주적 시민성 교육입니다. 그래서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바탕으로 이 책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소재와 활동을 바탕으로 참가자 간의 대화가 진행되면서 여러분의 언어가 더욱 깊은 사고로 이어지며 다듬어 질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5) <https://www.bpb.de/die-bpb/51743/demokratie-staerken-zivilgesellschaft-foerdern> (2023년 10월 2일)

6) <https://www.bpb.de/kurz-knapp/lexika/handwoerterbuch-politisches-system/202088/pluralismus/> (2023년 10월 2일)

7) 곤도 다카히로 (2009) “독일의 젊은 세대의 정치 교육—민주주의 사회의 교육적 기반” 일본 학술 협력 재단 『학술의 동향』 2009년 10월호, pp.10-21.

8) <https://www.bpb.de/die-bpb/ueber-uns/auftrag/51310/beutelsbacher-konsens/> (2023년 10월 28일)